



[경제종합] LG에너지솔루션 IPO 절차 돌입 이르면 9~10월 상장 03



Economy

코스피	3216.18 (-31.65)	코스닥	978.79 (-7.33)
금리(미국 3년)	1.137 (-0.037)	환율(원/달러)	1115.40 (+1.20) (9일)

G2 '반도체 굴기'에 K반도체 샌드위치 우려

(미국·중국)

하반기 서버수요 증가 기대감에 전세계 반도체 규모 580조 전망 1분기 예측보다 10% 가량 상향

국내업계 호재보다 위기감 고조 美 마이크론 1a D램 양산 발표에 中 저가 메모리 점유율 확대까지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오히려 위기감이 팽배한 모습이다. 미국까지 합세한 '반도체 굴기'에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최근 '2021년 2분기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5272억 달러(한화 약 580조원)로 예상했다.

전년(4404억달러) 대비 19.7%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분기에 예측했던 4883억달러보다도 10% 가량 상향 조정됐다.

최근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반영한 결과다. 차량용 반도체로 촉발된 반도체



대만 마이크론 타이중 공장 /마이크론



인터배터리 전시회 찾은 문승욱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내빈들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및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참가한 포스코케미칼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문 장관, 전영현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업대표. <관련기사 4면> /뉴시스

체 공급 부족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등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가격 인상과 생산 증대가 불가피하게 된 것.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모리 성장률을 전년 대비 31.7% 많은 1548억 달러로 예측했다. 1분기 보고서에서 1264억달러로 예상했지만, 20% 이상을 추가로 조정했다. 센서 반도체(22.4%)와 아날로그 반도체(21.7%)보다도 훨씬 높았다.

메모리 가격이 정체된 가운데에서도 이같은 전망이 나온 이유는 하반기부터 서버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규 CPU 출시에 더해 북미 데이터센터 업체들도 다시 재

고 확보에 나설 계획, 지난해 체결한 장기 계약도 마무리되면서 가격도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단연 최대 수혜지는 한국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기업, SK하이닉스도 D램으로는 뒤를 잇고 있고, 낸드도 인텔과 합치면 2위다. WSTS에서도 올해 지역별 반도체 성장률이 아시아·태평양에서 23.5%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좀처럼 촉표를 쏘아올리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글로벌 정부가 앞다퉀 '반도체 굴기'에 나서 는 상황, 2018년과 같은 '대박'이 어려

워진데다가 경쟁 업계 추격도 빨라진 탓이다.

당장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10나노(1a) D램 양산을 공식 발표하면서 위기감은 현실화됐다. 올 초 1a D램 양산 발표 후에도 실물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조만간 양산 제품을 내보이고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얘 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말에나 1a D램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도 뺏길 위기다. 앞서 마이크론은 올 초 176단 낸드를 양산하고 SSD를 출시하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항생제 '어타페넴' 최대시장 美 진출

JW중외제약 원료로 만든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국산 카바페넴계 항생제 원료로 생산된 완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전체 항생제 시장(약 3800억원) 가운데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약 2300억원(2억1300만달러)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JW중외제약은 자체 기술로 제조한 항생제 원료 어타페넴의 완제품이 미국에 출시됐다고 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지주회사 JW홀딩스가 2017년 인도 그랜드 파마와 어타페넴 원료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화공장 페넴계 항생제 전용동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과 어타페넴 원료의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 승인을 받았다.



국산 카바페넴계 항생제 첫 진출 광범위 항균력·내성균 효능 우수 요로감염 등 난치성 감염에 사용

그랜드 파마는 JW중외제약 시화공장에서 제조된 어타페넴 원료를 활용 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지난 3월 미국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미국 판매는 닥터레디스가 담당한다.

페니실린, 세파계에이온카바페넴계의 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는 어타페넴은 광범위한 항균력과 내성균에 대한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피부부조적 감염, 폐렴, 요로감염, 급성골반감염 등 난치성 감염에 쓰인다. 어타페넴의 오리지널 약은 미국 머크의 인반즈다.

JW그룹의 글로벌사업을 담당하는 JW홀딩스는 앞으로 어타페넴 원료를 그랜드 파마에 공급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 현재 그랜드 파마와 함께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연간 1000만 달러(약 112억원) 이상의 어타페넴 원료 수출이 기대된다.

JW홀딩스는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만큼 글로벌 카바페넴계 항생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독자원료 개발에 성공한 최신 카바페넴 계열인 도리페넴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미페넴, 메로페넴 원료·완제의약품 수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車업계 발목잡는 '임단협 기간' 연장 움직임

(2년→3년)

노사갈등 여파 수만여대 생산 손실 급속노조 규약에 단독 연장은 무리

해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 기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임금협상의 경우 매년, 단체협상은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결국 완성차 업체들은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고려해 단체협약 개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제안했다. 잦은 협상으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단협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노사가 합의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6일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2년마다 한 번씩 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단협 기간 연장 분위기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확산되는 추세다. 쌍용차 노사는 자구계획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경우 사측이 임금 협상 주기를 기존 1년에서 단협과 같은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급속노조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을 준비하는 노조의 부담도 커지겠다. 만약 지난해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에 따른 실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매년 좋아질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단약(한국지엠 노조) 지난해 임금 협상 주기를 2년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올해 성과급과 연봉 인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변수로 섰다운 등 감산을 진행하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도 악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송영길, '천안함 수장' 발언 사과... "잘못된 언어사용 유감" /사진 뉴시스
- ▲ 與, '부동산 12인' 후폭풍... "탈당 권유 철회하라" 반발

- ▲ 윤석열 "가는 길 지켜봐 달라"... 사실상 대선 출마 공식화
- ▲ 박용진, 與 대선후보 선호도서 이재명·이낙연 이어 3위



- ▲ 女중사 사망 사과한 서욱 국방장관... 사퇴 요구 직면 /사진 뉴시스
- ▲ 與 "국힘·국당 전수조사 무소식"... 국민의당 "먼저 제안했다"